

## 간세포암종의 술 후 조기 광범위 간내재발

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

김봉완·왕희정·김명욱

**대상 및 방법** 1994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, 본원에서 간세포암종으로 간절제술 시행 받았던 293명의 환자에 대한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. 전체 환자 중 술 후 6개월 내에 재발 없이 간부전증으로 사망한 8명과 추적 실종된 환자(LTFU) 3명을 포함한 11명을 제외한 282명의 대상 환자 중에 술 후 6개월 이내 광범위 간내재발 소견을 보였던 25명의 환자군과 이를 제외한 대조군 환자 257명의 간세포암종의 종양 인자들을 비교 분석하였다. 두 군간의 비교 인자로는 환자의 나이, 성별, 혈청 bilirubin, albumin, AST, ALT, ICG-R15, Prothrombin time 수치와 종양 인자로 혈청 AFP 수치, 종양의 최대 크기, 종양의 성장양상(growth pattern), 다발성종양의 유무, 종양피막형성, 종양피막침윤, 육안적 문맥침윤, 육안적 간정맥침윤 및 담관침윤, 미세혈관침윤, 종양격벽형성, 간피막침윤, 횡격막을 포함한 타장기침윤, 종양괴열, 조직학적 절제연에 종양세포 존재 유무, Edmond-Steiner grade 등을 단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하여 비교하였다.

**결과** 술 후 6개월 내 전체 조기재발은 환자 282명 중 53명으로 18.8%에서 보였고, 재발환자 중 광범위 간내재발은 25명으로 전체 재발 형태의 47%를 차지하였다. 6개월 내 광범위 간내재발 소견을 보인 환자군의 평균 재발기간은  $3.4 \pm 1.6$ 개월이었고, 재발 후 평균 생존기간은  $6.52 \pm 6.45$ 개월이었다. 단변량 분석을 통해 환자 및 종양 인자를 분석한 결과 종양의 크기, 성장양상, 종양의 다발성 유무, 육안적 문맥침윤, 미세혈관침윤, 혈청 AFP 수치가 6개월 내 광범위 재발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 재발군에서의 종양 크기는  $10.6 \pm 5.2$  cm, 대조군에서는  $5.36 \pm 3.5$  cm를 보였으며, 성장양상으로는 재발군 환자 중 40% (10/25)가, 대조군에서는 13% (34/257)의 환자에서 침윤형 성장양식(infiltrative growth pattern)을 보였다. 육안적 문맥침윤은 재발군에서 40% (10/25), 대조군에서는 9.7% (25/257)에서 보였고 미세혈관침윤은 재발군에서 84%에서 대조군에서는 49%에서 양성소견을 보였다. 혈청 AFP 수치는 재발군에서  $13245 \pm 14156$  ng/ml 대조군에서는  $2913 \pm 7646$  ng/ml로 두 군간의 차이를 보였다.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는 종양의 크기, 육안적 문맥침윤, 조직학적 절제연 종양세포 존재 유무가 6개월 내 광범위 간내재발에 의미 있는 인자로 나타났다.

**결론** 간세포암종의 수술 직후 조기재발의 가장 흔한 형태인 광범위 간내재발은 환자의 생존에 치명적인 소견으로, 술 전 또는 수술 직후 광범위 간내재발의 예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되고, 이러한 형태의 간내재발이 예상될 경우 새로운 임상치료의 시도나 경동맥화학요법 등의 술 후 보조요법을 조기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.